

#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관련요인\*

## Correlates of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인천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전임강사 정윤주

Dep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Full-time Lecturer : Yun-Joo Chyung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1) how mothers generally react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2)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3)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nd their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4)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5) whether there wer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246 preschoolers and their mothers. It was found that emotion-focused socialization and problem-focused socialization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reactions by mothers to cope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ose between mothers' depression and parenting stress and their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ose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ose betwee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were all partially significant. Sex differences were found in some of the relationships found significant.

**주제어(Key Words):**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기질(temperament),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orresponding Author: Yun-Joo Chyung,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Tel: +82-32-770-8251 Fax: +82-32-770-8250 E-mail: ychyung@incheon.ac.kr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5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서론

인간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한다. 정서에는 즐거움이나 기쁨 같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 개인의 정서 경험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질서 유지와도 관련 되므로 경험 되는데로 표현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서는 사적인 경험이지만 사회화의 대상으로서 부모는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정서를 조절하고 때와 장소에 맞게 표현하도록 양육한다.

그런데 긍정적 정서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정서는 최소화하려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런 성향이기에 때문에(Tomkins, 1963)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는 긍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정서 표현을 수용하기 보다는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서 사회화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긍정적 정서보다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며 이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이 어떠한지를 고찰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이에 따른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은 최근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영역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전반적인 양육방식과는 구분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반응하며 적절히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이 환경의 요구에 융통성 있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세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여겨지며(Campos, Campos, Barrett, 1989; Cole, Michel, & Teti, 1994) 장기간 지속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방법은 정신병리 발생과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 단시간의 부정적 정서 상태는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반응을 통해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대처방법이나 문제해결 방법이 없거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자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면 정리병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Thompson, 1994). 그런데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하므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적응적인 대처방안을 학습하여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발달은 가족이나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아동과 주된 양육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중요하다(Emde, 1989; Gable & Isabella, 1992). 정서조절은 아동이 어릴수록 양육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크다가 아동이 성장하면서 점차 아동 자신이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스스로 정서를 조절해 나가는 비중이 커지며 발달하게 된다. 아동이 초기에 사용하는 정서조절 전략은 과도한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는 자극을 차단하기 위하여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반사적이며 단순한 행동 도식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점차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Kopp, 1989). 이처럼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 및 양육자가 부정적 정서에 대응하는 방식을 아동이 학습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아동이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 조절을 학습하는 과정의 일부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은 다양한데 어머니의 반응에 따라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억압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학습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양육자가 이를 무시하려 한다면 아동은 거부당했다고 느끼며 화가 나게 되고 화난 감정은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표출되어 갈등이 유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처할 것으로 추론된다(Bradley, 2000). 이런 경우에 아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이를 다스리는 방법을 학습하기 어렵게 되고 정서표현을 억제하게 되므로 정서조절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는 일이 반복되면 이후에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동안 표현되지 못한 채 쌓여 있던 감정으로 인해 정서적 각성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 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거나 부적절한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Gross & Levenson, 1997). 따라서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하게 통제하거나 처벌하는 반응은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Denham, & Grout, 1992;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반면에 양육자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고 함께 대처해 나가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아동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서적 각성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대인갈등의 원만한 해결이나 이타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사회적 유능성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Field, 1994; Goldberg, MacKay-Soroka, & Rochester, 1994).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 따르면 지지적이며 문제중심적인 부모의 반응은 아동의 사회적 기술, 공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Bryant, 1987; Denham, 1993; Hardy, Power, & Jaedicke, 1993; Laird, Pettit, Mize, Brown, & Lindsey, 1994). 한편, 부모의 정서표현격려 반응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지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선형적인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아동의 불안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반응과 관계가 있지만 조절되지 않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며 유능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oberts & Strayer, 1987). 또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거나 처벌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회피하는 반응이나 부적절한 대처 반응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분노나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한 특성과의 관계가 있었다(Eisenberg & Fabes, 1994).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이 아동의 정서조절 발달과 관계되며 아동의 전반적인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만큼 부모의 어떤 특성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정서적 특성이 자녀양육 관련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들(e.g., Fabes, Leonard, Kupanoff, & Martin, 2001; Fabes, Poulin, Eisenberg, & Madden-Derdich, 2002; Gottman, 1997)을 살펴보면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처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으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 각성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정적 정서 표현을 신속히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부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아동의 정서표현을 강압적으로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울성향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심한 어머니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과민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고 할 수 있다. 우울성향은 주변 상황을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무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Maier & Seligman, 1976), 우울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여 아동이 나타내는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할 것이므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아동의 정서에 대해 처벌적인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리라 예상된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양육과 관련된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높다면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편한 상황일 때 신속하게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처벌적이거나 최소화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아동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부모가 아동을 대하는 방식은 아동에 대한 지각에 의해서 달라진다. 아동이 기질적으로 순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어렵지 않다고 지각하는 부모는 아동을 보다 수용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지만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부모로 하여금 아동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하여 정서 사회화 상황에서 감정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Bugental, 1992; Denham, 1998).

그런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정서의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표현하는 사람의 성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남아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아가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수용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방식의 전반적인 경향과 어머니의 반응방식에 따라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특성이 다른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인 우울성향과 양육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

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다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반응의 특성은 아동의 애착, 정서적 안정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 도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로서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내는 행동과 관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아동 특성과 부모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특성 중 기질을, 부모의 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성향을 관련 변수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은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른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우울성향,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른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른가?
- 연구문제 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는 어떠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 5곳에 재원 중인 만 4세, 5세, 6세 아동 300명과 어머니였다. 연구대상 아동과 어머니에 대한 자료는 어머니 300명과 보육교사 17명에게 배부된 질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는 어머니용과 교사용 두 가지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척도, 아동의 기질 척도, 어머니의 우울성향 척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척도 및 아동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고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

의 행동문제와 사회적 유능성 척도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대처 척도(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Fabes, Eisenberg, & Bernzweig, 1990)를 김희정(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아동에게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12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자녀가 그런 상황에 처해 부정적 정서(분노, 두려움, 불안, 수치, 초조, 실망 등)를 표현할 경우에 부모가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정서표현 격려,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최소화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응답하도록 하는 7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어 6가지 반응방식 각 하위 척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12점부터 60점까지이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6가지 반응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로서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의 행동 때문에 나 자신이 화나게 된다' 이다. 부모의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는 12개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1이었다. 처벌적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기 위해 벌을 주는 정도로서 문항의 예를 들면,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한다' 이다. 처벌적 반응을 측정하는 12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정서표현 격려는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해 주고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 하는 정도이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에게 무엇이 무서웠는지 말해보도록 한다' 이다. 정서표현 격려를 측정하는 12 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4이었다.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은 아동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위로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이를 위로해주어 기분이 나아지도록 애쓴다' 이다.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을 측정하는 12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 문제상황을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주사가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이다.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을 측정하는 12문항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76이었다. 최소화 반응은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의 심각성이나 아동의 스트레스를 가벼운 일로 넘겨버리려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도이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별일도 아닌데 운

다고 말한다'이다. 최소화 반응을 측정하는 12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는 .79이었다.

2)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 (Pease, Clark, & Crase, 1979)을 박윤정(1997)이 수정, 보완한 척도와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 (Jewswan, Luster, & Kostelnik, 1993)의 친사회성 하위척도 및 또래적응 하위척도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교사가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했다. IOWA Social Competency Scale은 반응능력 5문항, 리더쉽 9문항,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4문항,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6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반응능력과 리더쉽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반응능력이 5점부터 25점, 리더쉽이 9점부터 45점까지이다. PAQ의 친사회성 하위척도와 또래적응 하위척도는 각각 5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서와 같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5점부터 25점까지이다. 반응능력, 리더쉽, 친사회성, 또래적응 척도의 문항 예를 들어보면, 각각 '교사가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꾼다', '친구들과 놀 때 자기가 먼저 어떤 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친구들이나 교사들을 잘 도와준다',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이다.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반응능력 .77, 리더쉽 .74, 친사회성 .87, 또래적응 .86이었다.

3)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기관 교사가 평소에 아동을 관찰한 바를 토대로 아동의 과잉행동-주의산만, 불안-두려움, 적대감-공격성에 대해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된 측정도구인 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PBQ) (Behar & Stringfield, 1974) 30문항 중에서 불안-두려움을 측정하는 9문항과 적대감-공격성을 측정하는 11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불안-두려움은 '걱정이 많다, 적대감-공격성은 '다른 아이들을 못살게 군다이다'. 또한 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 (Pease, Clark, & Crase, 1979)을 박윤정(1997)이 수정, 보완한 척도에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4문항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6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문항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척도 문항의 예를 들면, 각각 '처음 만난 아이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쉽게 화를 낸다'이다. PBQ의 불안-두려움, 적대감-공격성 척도와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척도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불안-두려움 척도가 9점부터 45점까지, 적대감-공격성 척도가 11점부터 55점까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이 4점부터 20점까지,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이 6점부터 30점까지이다.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불안-두려움 .76, 적대감-공격성 .92,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74,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78이었다.

4)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Buss와 Plomin(1984)의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김지연(2003)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성 5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10문항(수줍음 5문항, 사교성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각 하위 척도에서 5점부터 25점까지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정서성은 '아이는 쉽게 운다', 활동성은 '아이는 항상 부산하게 움직인다', 수줍음은 '아이는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교성은 '아이는 혼자 보다는 다른 사람과 같이 노는 걸 좋아한다'이다. 각 하위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정서성 척도 .72, 활동성 척도 .77, 수줍음 척도 .87, 사교성 척도 .72이었다.

5) 어머니의 우울성향

어머니의 우울성향은 일반적인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Ran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바탕으로 한국인 특성에 맞게 개발된 통합적 한국판 CES-D(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주 동안 자신이 경험한 감정과 행동의 빈도에 대해 '극히 드물게' (1점), '가끔' (2점), '자주' (3점), '거의 대부분' (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1주 동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귀찮게 느껴졌다',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껴졌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등이다. 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었다.

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 중에서 일상적인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각각 12점부터 60점까지이다. 이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아이 때문에 항상 마음에 여유가 없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내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등이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다섯 곳에 재원 중인 만 4세, 5세, 6세 아동의 어머니 300명과 보육교사 17명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사전에 해당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자료 조사 협조를 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질문지 응답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아동을 통해 배부 및 회수되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문지는 응답 방법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원장을 통하여 배부 및 회수된 후에 연구자가 수합하였다. 어머니와 교사에게 배부된 질문지는 각각 300부였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 질문지는 254부, 교사 질문지는 273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각각 84.7%, 91.0%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대상 아동에 대해 어머니나 교사 중 한 사람이 응답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많은 질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246명의 아동(남아 143명, 여아 103명)과 어머니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sion 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의 관계,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의 관계,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연구대상 아동과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246)

변수	구분	빈도 (N)	백분율 (%)
아동의 성별	남	143	58.1
	여	103	41.9
아동의 연령	만 4세	99	40.2
	만 5세	92	37.4
	만 6세	55	22.4
자녀 수	1명	58	23.8
	2명	165	67.6
	3명	21	8.6
아버지의 연령	30세 이하	10	4.1
	31~35세	77	31.3
	36~40세	124	50.4
	41~45세	26	10.6
	46세 이상	9	3.7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30	12.2
	31~35세	138	56.1
	36~40세	70	28.5
	41~45세	4	1.6
	46세 이상	4	1.6
아버지의 학력	고졸 이하	33	13.4
	대졸	169	68.7
	대학원 졸	38	15.4
어머니의 학력	고졸 이하	83	33.7
	대졸	136	55.3
	대학원 졸	25	10.2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187	76.0
	비취업	59	24.0
가족의 월 수입	150만원 미만	20	8.1
	150~300만원 미만	26	10.6
	300~450만원 미만	89	36.2
	450~600만원 미만	65	26.4
	600~750만원 미만	33	13.4
	750만원 이상	13	5.3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방식의 전반적 경향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6가지 반응방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중 정서중심 사회화와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서표현 격려, 스트레스

〈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평균과 표준편차

반응방식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반응	34.66	4.58
차별적 반응	29.53	6.47
최소화 반응	33.66	6.19
정서표현 격려	35.95	7.03
정서중심 사회화	44.57	5.49
문제중심 사회화	44.47	5.02

반응, 최소화 반응, 차별적 반응 순으로서 차별적 반응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기질 변수인 정서성, 활동성, 수줍음, 사교성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6가지 반응방식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상관관계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에는 정서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r=.26, p<.01$ ), 차별적 반응( $r=.26, p<.01$ ), 최소화 반응( $r=.24, p<.01$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성과 어머니의 차별적 반응( $r=-.17, p<.01$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의 정서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는 남아가 부정적

〈표 3〉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상관관계(r)

반응방식	정서성		활동성		수줍음		사교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스트레스 반응	.26**	.19	.00	-.14	.11	.22*	.02	-.21*
차별적 반응	.26**	.14	-.14	.10	.02	.06	-.17*	-.06
최소화 반응	.24**	-.14	-.06	.06	.05	.03	-.04	.03
정서표현 격려	-.16	-.24**	-.05	.04	-.15	-.13	.12	.18
정서중심 사회화	-.03	-.12	.09	.15	-.04	-.11	.10	.20*
문제중심 사회화	-.09	-.18	.12	.15	-.12	-.19	.09	.21*

\* $p<.05$ , \*\* $p<.01$

정서를 표현할 때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경험하며 벌을 주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남아가 표현하는 정서적 경험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정서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 격려( $r=-.24, p<.01$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줍음( $r=.22, p<.01$ )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성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r=-.21, p<.05$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 $r=.20, p<.05$ ) 및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 $r=.21, p<.05$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정서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어머니는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정서표현을 덜 격려하며, 여아가 수줍다고 느낄수록 여아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경험하고, 여아가 사교적이라고 느낄수록 여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스트레스는 덜 경험하면서 정서중심 사회화 및 문제중심 사회화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우울성향, 양육 스트레스)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상관관계도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r=.29, p<.01$ ), 차별적 반응( $r=.31, p<.01$ ), 최소화 반응( $r=.26,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서표현 격려( $r=-.20, p<.05$ )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

〈표 4〉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상관관계(r)

반응방식	우울성향		양육 스트레스	
	남	여	남	여
스트레스 반응	-.01	.29**	.20*	.03
차별적 반응	.01	.31**	.20*	-.13
최소화 반응	-.09	.26**	.20*	-.13
정서표현 격려	-.06	-.20*	.01	-.16
정서중심 사회화	-.14	-.19	-.03	-.14
문제중심 사회화	-.12	-.16	-.07	-.15

\* $p<.05$ , \*\* $p<.01$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우울성향이 강할수록 어머니는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며 벌을 주거나 아동의 정서를 최소화 하려 하고 정서표현을 덜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는 여아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r=.20, p<.05$ ), 처벌적 반응( $r=.20, p<.05$ ), 최소화 반응( $r=.20, p<.05$ )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어머니는 남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스트레스 반응, 벌을 주는 반응, 정서적 경험을 최소화 하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6가지와 아동의 불안-두려움, 적대감-공격성,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 사회적 상황에서의 과민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6가지 모두 아동의 불안-두려움, 적대감-공격성, 사회적 두려움, 사회적 과민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처벌적

<표 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r)

	불안- 두려움		적대감- 공격성		사회적 두려움		사회적 과민성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스트레스 반응	.07	-.05	.04	-.09	.01	-.02	.12	.06
처벌적 반응	.11	.01	.11	.01	-.02	.21*	.15	.05
최소화 반응	.11	-.14	.10	-.10	.05	.02	.10	.08
정서표현 격려	.05	.09	-.04	-.04	.03	-.01	.03	-.07
정서중심 사회화	-.01	-.04	-.06	.04	.12	-.09	-.02	.04
문제중심 사회화	.00	-.08	-.14	-.03	.10	-.06	.00	.07

\* $p<.05$

반응이 아동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두려움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21, p<.05$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을 강하게 보일수록 여아가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을 보이는 정도가 높았다.

5.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6가지와 아동의 반응능력, 리더십, 친사회성, 또래적응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상관관계(r)

	반응능력		리더십		친사회성		또래적응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스트레스 반응	.03	.09	-.05	-.01	-.02	.16	-.07	.10
처벌적 반응	.03	-.11	-.05	-.08	-.11	-.11	-.12	-.14
최소화 반응	-.05	-.10	-.09	-.10	-.05	-.04	-.04	-.08
정서표현 격려	.02	-.26**	-.05	-.16	.07	-.18	.04	-.22*
정서중심 사회화	-.03	-.03	.04	-.07	.09	-.06	.12	-.08
문제중심 사회화	.03	-.10	-.02	-.05	.09	-.09	.08	-.05

\* $p<.05$ , \*\* $p<.01$

이 분석에서도 결과는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남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일 수 있는 반응방식 6가지 모두 아동의 반응능력, 리더십, 친사회성, 또래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중 정서표현 격려가 아동의 반응능력( $r=-.26, p<.01$ ) 및 또래적응( $r=-.22, p<.05$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여아의 반응능력과 또래적응 수준이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일상생활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방식의 경향이 어떤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 나타내는 반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 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별로 얻어진 결과에 따라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반응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알아본 결과,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어머니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 방법은 아동을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이 정서 상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정서중심 사회화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과 같은 문제중심 사회화였다. 이 결과는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유미, 손경화(2004)의 연구 결과와도 같아 유아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에 대해서 어머니는 대체로 아동의 정서경험을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아동의 정서경험을 인정하며 부정적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방식의 대응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에 아동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기질적으로 정서적 반응이 강한 아동은 일단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면 달래기 어렵다는 것을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중단하기 위하여 처벌적 반응이나 최소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아의 경우는 여아보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며 자제하게 하는 식으로 사회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서성이 강한 남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는 여아의 경우보다 더 부적절하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더욱 비지지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아의 경우에는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여아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정서표현 격려를 덜하고, 수줍음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정도가 높았다. 한편 여아의 사교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정도는 낮았고 정서중심 사회화 반응과 문제중심 사회화 반응은 높았다. 여아가 정서성이 높을 경우에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강하게 정서를 표현할 것이므로 어머니는 정서표현을 격려하기 보다는 규제함으로써 아

동의 정서조절을 도우려 할 것이다. 또한 여아가 수줍음이 많으면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스스로 정서적 안정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므로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스트레스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동이 기질적으로 사교적일 때 어머니는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더라도 곧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느낄 것이며 아동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위로하거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등의 사회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Bugental(1992)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할 때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자신감이 적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서 사회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보다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중단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성향 및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선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이 높았고 정서표현 격려는 낮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며 벌을 주거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정서표현 격려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변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부족하며 자신감이 없고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우울성향을 지니고 있을 때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을 받아줄 수 있는 정서적인 역량이 부족하여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처벌을 통해 이러한 표현을 신속히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는 여아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성향과 어머니의 반응방식 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 정서로 인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벌을 주거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최소화 하려는

반응을 더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우울 성향과 어머니의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최소화 반응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설명은 우울 성향이 있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욱 다루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Bradley, 2000)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체로 남아의 활동성이 여아보다 높으므로 남아를 다루기가 더 어렵게 지각될 수 있다. 그런데 우울성향을 갖는 어머니라면 남아를 다루는 데 대한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으며 무기력감으로 인해 반응을 포기함으로써 우울성향 정도가 다르더라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방식에 차이가 없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선행연구의 부재로 한계가 있다. 추후에 유사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후에 재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남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반응하는 방식과 각 방식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보이는 반응의 질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대인 상호작용 전반에 대한 감정,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enham, 1998) 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정서 사회화 하는 상황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기 어려워지며 대인관계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아의 경우에만 어머니의 정서표현 격려와 반응능력 및 또래적응 간에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부모의 정서표현격려는 긍정적인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선행적인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던 선행연구(Roberts & Strayer, 1987)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것은 아동의 불안이나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반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절되지 않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도 바람직하지는 않아서 아동이 사회적으로 적절하며 유능한 행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 격려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반응능력이나 또래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또 다른 선행연구(Eisenberg, Fabes, & Murphy, 1996)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정서표현 격려는 아동에 대해 지지적인 반응이지만 그 정도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정서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서표현을 격려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가 남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고 여아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은 추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반응방식과 아동의 행동 간의 관계가 이성 부모자녀 간에서 보다는 동성 부모자녀 간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안정현, 2002; Eisenberg & Fabes, 1994) 결과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만을 살펴보았으므로 여아의 행동과의 상관관계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 보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아동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아동이 정서적 안정성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아동의 성에 따라 결과가 달랐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부모에게 아동의 정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실용적인 시사점을 지닌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방식은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측정되었으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에 의해 어머니들이 실생활에서 보이는 행동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만4세~6세의 유아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 시점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가 아닌 상관관계만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에 대한 자료를 어머니와 교사에게서 수집함으로써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표현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아동의 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가정 이외 다른 맥락에서의 아동 행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고, 기존에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아동의 성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고 논의함으로써 정서 사회화에서 성차의 의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 참고문헌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 회지*, 35(5), 141-150.
- 김지연(2003). 아동의 기질 평정에 나타난 부모의 기질과 양육태도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정(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운정(1997). 귀인성향 및 정서인식능력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안정현(200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한유미, 손경화(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Behar, L.,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601-610.
- Bradley, S. J. (2000). *Affect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Bryant, B. K. (1987). Mental health, temperament, family, and friends: Perspectives on children's empathy and social perspective taking. In M. Eisenberg &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245-2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gental, D. B. (1992).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within threat-oriented family systems. In I. E. Sigel, A. McGillicuddy-de Lisi, & J. 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 219-248). Hillsdale, NJ: Erlbaum.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mpos, J. J., Campos, J. J.,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94-402.
- Cole, P. M., Michel, M. K., & Teti, L. O.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73-100.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715-728.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Denham, S. A., & Grout, L. (1992).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coping: Topography and relations with preschoo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 118, 75-101.
- Denham, S. A., Mitchell-Copeland, J., Strandberg, K., Auerbach, S., & Blair, K. (1997). Parental contributions to preschoolers' emotional compete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Motivation and Emotion*, 27, 65-86.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2227-2247.
- Emde, R. N. (1989). The infant's relationship experience: Developmental and affective aspects. In A. J. Sameroff & R. N. Emde (Eds.),

- Relationship disturbances in early childhood: A developmental approach* (pp. 35-51). New York: Basic Books.
- Fabes, R. A., Eisenberg, N., & Bernzweig, J. (1990).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Procedures and scoring. Available from authors. Arizona State University.
- Fabes, R. A., Leonard, S. A., Kupanoff, K., & Martin, C. L. (2001). Parental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and soci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72*, 907-920.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08-227.
- Gable, S., & Isabella, R. A. (1992). Maternal contributions to infant regulation of arousal.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5*, 95-107.
- Goldberg, S., MacKay-Soroka, S., & Rochester, M. (1994). Affect, attachment and maternal responsivenes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 335-339.
- Gottman, J. (1997). *The heart of parenting: How to raise an emotionally intelligent chil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Hardy, D. F., Power, T. G., & Jaedicke, S. (1993). Examining the relation of parenting to children's coping with everyday stress.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33-51.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Laird, R. D., Pettit, G. S., Mize, J., Brown, E. G., & Lindsey, E. (1994). Mother-child conversation about peers: Contributions to competence. *Family Relations, 43*, 425-432.
- Maier, S. F., & Seligman, M. E. (1976). Learned helplessnes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5*, 3-46.
- Pease, D., Clark, S.,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Form*. North Central 124 Regional Research Project, Iowa State University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Project 2019. Ames, I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erts, W., & Strayer, J. (1987). Parents' responses to the emotional distress of their children: Relations with children's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15-432.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53-72
- Tomkins, S. S. (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 2. The negative affects*. New York: Springer.

(2006년 7월 31일 접수, 2006년 9월 27일 채택)